

복잡한 세상을 사는 간결한 지혜 노아 벤샤의 「빵장수 야곱」

— 교사 丘得煥씨

지금 특사중

현대인은 때로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의 책보다는 쉽고 간결한 책을 보기를 원한다. 서울

경신고등학교 교사 丘得煥씨(43)도 마찬가지. 그는 최근 미국의 시인이며 철학자인 노아 벤샤의 「빵장수 야곱」(박은숙·유재하 옮김, 김영사)을 통해 쉬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은 너무 두껍고 내용도 어려워 부담감을 줍니다. 그렇잖아도 복잡한 세상인데, 책이라도 간단하고 쉬운 것을 읽고 싶었지요. 그래서 고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빵장수 야곱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담은 쪽지를 빵 속에 넣어 빵을 사는 고객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곱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서,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 빵가게의 오븐에 불을 지핀다. 오븐이 달구어지고 첫 반죽이 부푸는 동안 그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세상과 우주에 대한 상념의 글을 쪽지에 적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조심스럽게 적어놓은 쪽지 중의 하나가 우연히 빵 속에 들어간 채 구워져, 그 빵을 사간 한 여인에게 발견됩니다. 그녀는 그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아 빵가게 주인에게 그 쪽지가 들어 있는 빵을 계속해서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야곱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찾게 된다. 그는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다. 인생의 목적과 질서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을 밝혀주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하고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며,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구득환씨는 또 동양의 선문답 같은 단순명쾌함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철학자인 만큼 매우 어렵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처럼 알기 쉽게 썼다는 것은 역시 모든 진리가 우리들이 보통 살아가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진리나 사랑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부딪치며 사는 이 세상이 진실 그대로라고 이 책에서도 가르치고 있듯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껴주다 보면 모두가 사랑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나 사랑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을 먼 곳에서만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고 딱딱하기로 유명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결한 이 책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지금은 행정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학부를 졸업한 직후에는 미술대학 대학원에 들어갔었다. 국전에 특선을 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는 다양한 재능만큼이나 말솜씨도 훌륭했다. 언젠가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하게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고 싶다면 웃음짓는 그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 차창용 기자



천재조각가의 비극적 생애 카미유 클로델 傳記 「어떤 여자」

— 번역가 金明植씨

지금 특사중

“내가 하는 일이 영화대본 번역하는 것이다 보니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을 수밖에요. 이 책을 보자 선뜻 손질이 가더군요. 더군다나 카미유 클로델에 정통한 여류연출가이자 직접 그 연극을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쓴 책이라 더욱 호감이 갔어요.”

극장영화나 TV영화의 대본번역을 주로 하고 있는 金明植씨(39)가 소개한 책은 카미유 클로델의 생애를 담은 「어떤 여자」(안느텔베 지음, 成玉澁 옮김, 예하).

이 책은 오귀스트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이며 천재적 조각가이기도 했던 카미유의 어린시절에서부터 로댕과의 만남과 헤어짐 등 그녀의 생애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소설화한 작품이다. 천부적 재능과 예술에 대한 광적 정열을 지녔던 카미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채 3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내다가 외롭게 생을 마친 비극적 생애는,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국내에서 책이 나오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예술가의 지나온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엔 또다른 감동이 있지요. 예술가는 뭐랄까 보통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어떤 혼을 간직한 것 같아 자연히 흥미롭게 되더군요. 예술작품 자체가 바로 예술가들의 영혼과 열정이 토해낸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애 자체는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金明植씨가 이제까지 번역한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신나게 한 한 TV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사회자 잔 모로가

루브르박물관에서 세계적인 조각가·화가들과 함께 미술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어 단숨에 번역을 끝마쳤다고. 이밖에도 金明植씨는 「암흑가의 두사람」 「춘희」 「미망인」 등등의 TV영화와 최근엔 소피 마르소가 주인공으로 나온 「라붐2」 등의 영화를 번역하기도 했다. 영어와 불어가 모두 가능해서 훨씬 다양하게 번역일을 맡을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선 번번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고백이다.

“번역일이 없으면 주로 책을 읽어요. 눈을 떴다 하면 책읽는 것이 버릇처럼 됐는데,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죠. 마침 아이리스 머독의 「바다여 바다여」를 읽는 중이어서 버스안에서도 그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버스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던 적도 있었어요.”

책을 워낙 좋아해서 가장 최근에 읽은 책만도 십여권이 넘는다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임은 품어야 맛인데」 「초록반아이들」 등의 목록을 줄줄 소개한다. 그 가운데 「초록반아이들」이란 동화책은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책방에서 플라 같이 읽은 것이란다.

이름처럼 밝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金明植씨는, 얼마전 이사한 아파트가 1004호인데 발음대로 읽으면 「천사」가 되어 「Angel's salon」이라는 문패를 달아놓기로 했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곳이 곧 「천사의 방」 아니겠느냐며 짓는 웃음이 밝기만 하다. — 김지원 기자



파업현장 속 중간관리자의 갈등 유순하의 장편소설 「생성」

—아트 디렉터 千好信씨

지금 독사중

시내 중구 草洞에 위치한 '한티'는 편집기획에서 교열, 제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편집

일체를 대행해주는 곳이다. 열평 남짓한 사무실에 모두 세사람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시작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거리가 적습니다. 그럴 땐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길 좋아해요. 怡山문학상을 수상한 유순하의 「생성」(폴빛)은 특히 제가 제안해서 모두 읽은 소설이지요.”

한티기획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千好信씨(29)는 연신 두 동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말을 잇는다.

“87년 8월 인천공단을 배경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업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 3일간, 노동자들의 요구와 회사측의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데, 이 와중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어요.”

「생성」은 87년 6월 이후 증폭된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 추이에 따라 그림을 보듯 생생하게 그렸다. 파업의 주체인 노동자, 사장으로 대표되는 회사측, 그리고 중간관리자 세 그룹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시각으로 분쟁의 실상에 근접하고 있다.

“노동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고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사장은 전근대적인 기업관을 가지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간관리자는

파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지요. 신종택부장은 '죽자'주의로 회사측을 따르다가 결국은 노사 양측이 상대방을 존중하는데서 분규를 벗어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중간관리자의 입장이 천호신씨에게 공감을 준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에서 양자의 원만한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한편을 선택하면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관리자의 입장이다. 구사대가 되어 노동자들을 짓밟을 수도, 노동자와 연대함으로써 풍요와 안락한 생활에의 기대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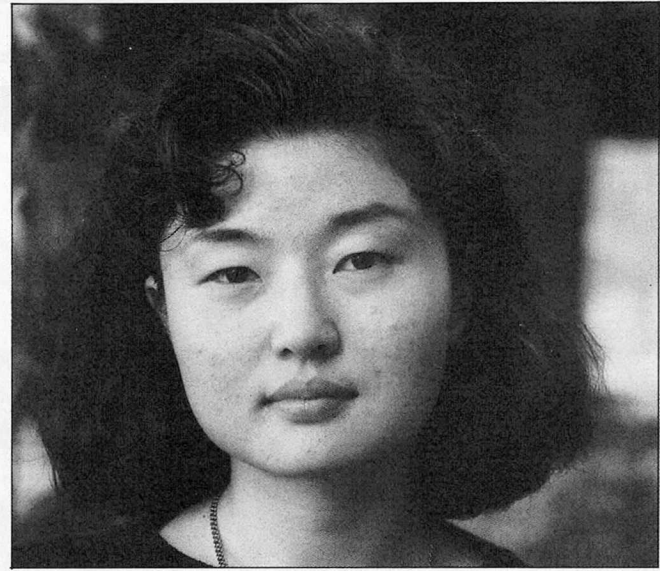
“파업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조소적이기 쉽지요. 소시민들에게는 노사 양측의 행동이 다 못마땅할 수도 있거든요. 흔히 노동문학이 노사의 대립만을 그리고 있는데 비해, 소시민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점이 좋았어요.”

노사분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어느 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천호신씨의 생각이다. 그 구조 속에 들어 있는 하나하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중간관리자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다행히도 한티는 노사갈등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다. 이전에 함께 직장생활을 하던 동료들이 공동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은 출판사들로부터 청탁받아 하는데, 아직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사람이 나이차는 조금씩 있지만, 친구처럼 도와가면서 개척해 나가야지요.”

— 홍현숙 기자



禪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 스즈끼 다이세쯔의 「禪 공부」

—신문기자 金民敬씨

지금 독사중

최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달마는 6세기경

인도 시양치(香至)국 셋째왕자로서 중국에 禪불교를 전수한 인물.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상당수가 禪宗입니다. 불교를 민족종교라고 하지만 禪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저의 경우 절에서 坐禪을 통해 피상적이거나 접하게 됐는데, 지금 읽고 있는 스즈끼 다이세쯔의 「禪 공부」(박용길 옮김, 해뜨)는 선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전해 줍니다.”

法寶新聞에서 문화·예술분야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민경씨(25)는 이책이 명승들의 일화를 예로 들어가면서 선의 역사와 원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보기드문 책이라고 말한다.

“선의 역사는 부처님이 회중을 향해 연꽃을 들어보이는데서 시작됩니다. 마하가섭이라는 제자만이 그 뜻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선은 문자나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한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좌선이라는 수련방법이 나오지요.”

선이란 본래 평안·寂靜·평형을 뜻하는 범어로, 자신의 본성을 찾아 그것이 佛性과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한다. 좌선은 깨달음을 찾는 수행방법으로 고요하게 앉아 주어진 公案을 깊이 사색하는 것이다.

“잠시 속세를 떠나 정돈된 마음상태를 갖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활력을 얻게 되지요. 능률을 증시하고 각박함을

느끼기 쉬운 현대인에게는 마음의 평정상태를 찾고자 하는 선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몇마디의 말이나 불가사의한 상징으로 깨달음을 찾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선은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한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크게 유행했었죠. 이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달마대사가 제자에게 전한 말이기도 하죠.”

불교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음을 책의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은 일본인의 저서를 英譯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곁들여져 오히려 이해를 쉽게 한다고.

“선의 사유방식을 서양의 사상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도, 중국, 일본의 선의 역사만을 언급했을 뿐 우리나라의 경우가 빠져있더군요.”

김민경씨가 불교와 관련을 맺는데는 대학에서 불교서클에 가입한 것이 동기가 됐다. 졸업 후 우연히 범보신문에 입사하게 되어 인연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불교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불교와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적성과 하는 일이 잘 들어맞아 즐겁다는 그녀의 표정이 힘차 보인다.

— 홍현숙 기자